



통권 제 194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12

디딤돌  
가을걷이



식물 이야기  
사랑을 다시  
정의하다



걸망에 담진 이야기  
삶과 죽음 사이

# 위드 다크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 양극을 피하는 것이 밀교다

물질과 정신이 양극을 달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한가지만 택해서도 안된다.

정신과 물질이 병진<sup>病進</sup>해야 한다.

이것이 색심불이<sup>色心不二</sup>이며 중도법이다.

현실을 궁정하는 것이 이것이 복지구족<sup>福智具足</sup>이 되느니라.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 살다보면 \_ 16

다시 제주…

\_ 이옥경

### 십선성취 \_ 36

고<sup>高</sup>

\_ 덕현 전수

### 차향기 \_ 64

홍차를 맛있게

우려 마시는 방법

\_ 김정애

### 04 불교이야기

### 10 계율이야기

### 16 살다보면

### 22 향유

### 26 산책

### 28 아름다운 세상

### 32 마음의 통볼

### 36 십선성취

### 40 생활 속 식물이야기

### 44 씨앗 한 알

### 48 사색

### 54 새 이야기

### 58 백유경

### 60 디딤돌

### 64 차향기

### 68 걸망에 담긴 이야기

### 70 득자기고

### 72 뜻 바루기

### 74 되짚어 보기

### 76 컬러링 만다라세상

### 계정혜 삼학 이야기 \_ 화령 정사

### 처신에 대한 계율(2) \_ 법경 정사

### 다시 제주… \_ 이옥경

### 본의 아니게 \_ 강동현

### 낮은 별 \_ 김대곤

###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T \_ 묘원화 전수

### 들이켜 보는 사랑 \_ 이이후재

### 고<sup>高</sup> \_ 덕현 전수

### 사랑을 다시 정의하다 사랑초- Purple shamrock \_ 이태웅

### 괴로움을 다루는 중도적 방법 \_ 법상 스님

### 동유럽 여행기 2 \_ 우연

### 까마귀 \_ 정목식

### 동전을 둘로 나눈 형제

### 기울걷이 \_ 지현 전수

### 홍차를 맛있게 우려 마시는 방법 \_ 김정애

### 삶과 죽음 사이 \_ 법일 정사

### 정각 음악제 \_ 여순애

###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 ① \_ 김재동

### 개회開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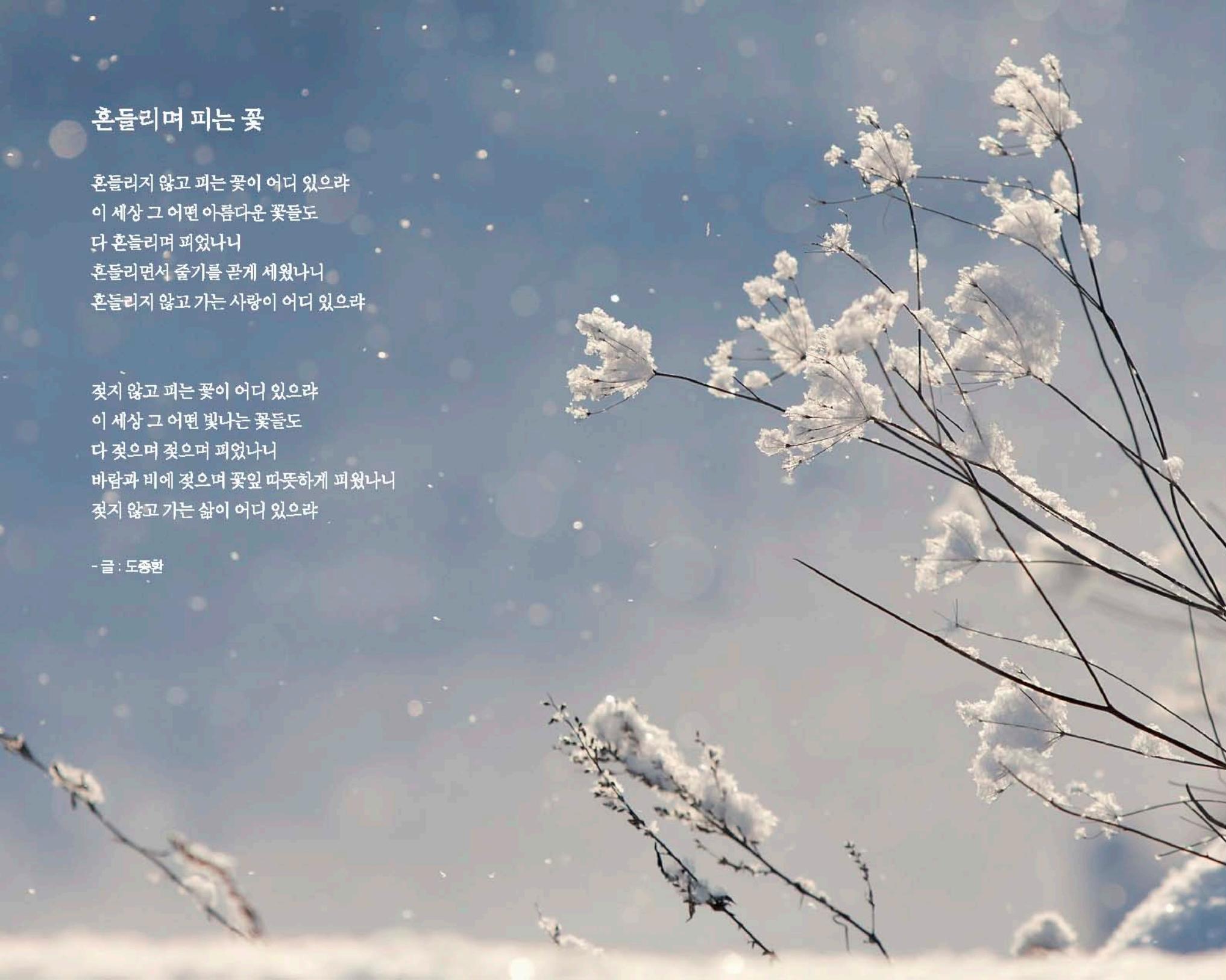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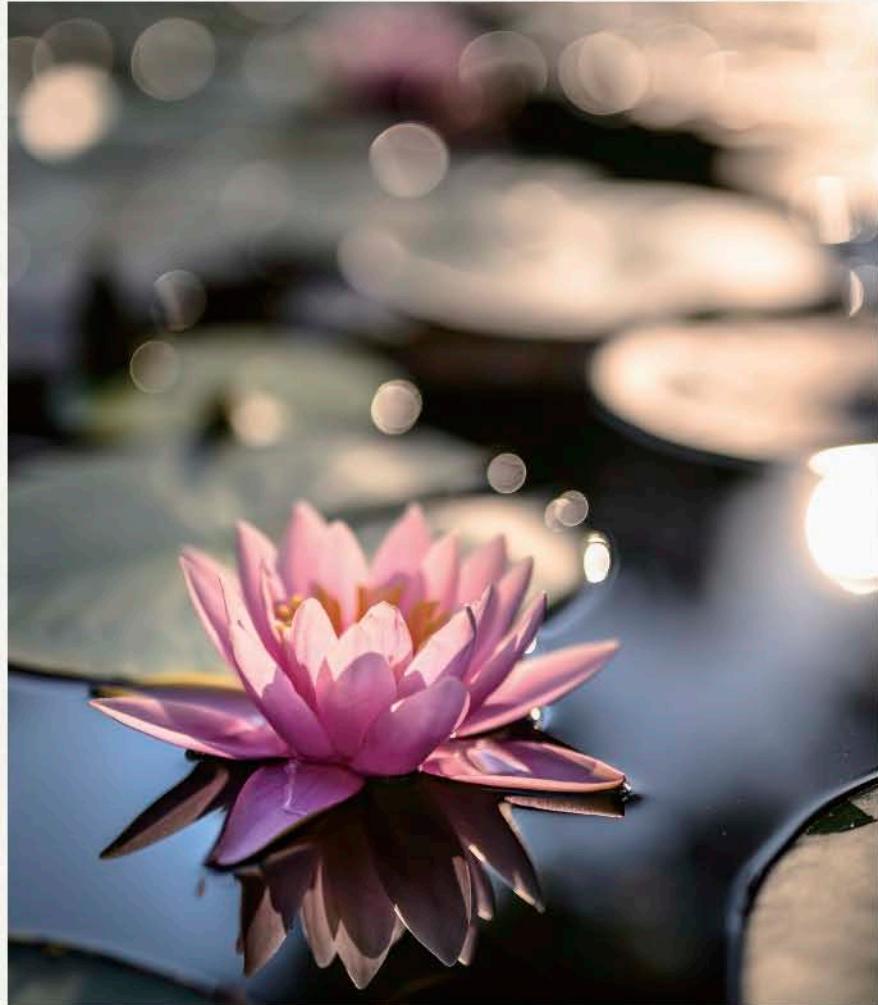
##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글: 도종환





### 지계의 근본 정신

계는 구족계를 비롯하여, 오계, 십계, 육법계, 팔재계 등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졌습니다. 오계, 팔재계, 십계, 구족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오팔십구<sup>五十八具</sup>의 계라고 하는데 계는 모두 구족계가 바탕이 되며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삼취정계를 비롯하여 대승보살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계가 있습니다. 계율에 대한 것은 출가자와 재가자, 북방 불교와 남방불교, 상좌불교와 대승불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종파에 따라 나름대로의 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심신을 청정하고 조화롭게 유지하여 좋은 습관을 몸에 불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바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삼학 가운데의 정<sup>淨</sup>에 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바른 생활태도와 습관을 몸에 불임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맑게 되어 진리에 대한 관찰과 명상이 한결 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깨달음의 지혜가 얻어집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

라 심신을 건전하게 함으로써 지혜를 이끌어 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를 통하여 바른 지혜를 이끌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소한 계율에 얹매여 도리어 계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계율을 지킨답시고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든가, 계율을 지키는 것을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거만함이 몸에 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한다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계를 지키는 것을 무슨 큰일이나 하는 듯이 유별을 떨면서 그것을 보관 듯이 떠벌리고 다닙니다.

대중들과 함께 여행 중에 식당에서 국수를 사먹다가 국수를 멸치국물로 했다니까 당장 바꾸어오라고 시자에게 호령하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별을 떠니까 짤짤매는 시자를 보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마치 무순 큰 죄나 지은 듯이 움츠려 들던 일이 생각납니다.

부처님께서는 탁발하실 때에 주는 대로 받아 드셨지 이것은 먹는 것이고 이것은 못 먹는 것이네 하시면서 골라내지 않으셨습니다.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 주는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며 먹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원칙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보살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된 지계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지요.

언젠가 부처님께서 탁발한 음식을 드시고 계셨는데 마침 거기에 참새고기가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잡숫고 계시니까 어떤 바라문이 출가승이 비린 것을 먹는다고 흥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문에게 비린 것은 너의 마음이지 비린 것을 먹는다고 마음이 비린 것이 아니라고 훈계를 하셨습니다. 탐진치로 가득 차고 다른 이를 경멸하며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이 비린 것이지 비린 것을 먹는다고 마음이 비린 것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아함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채식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훌륭하고 육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서 까지 일부러 육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서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채식만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육식이 나오게 되면 안 먹으면 됩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를 지키는 것은 심신을 깨끗이 하여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일차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계를 지키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또 하나의 집착의 굴레에 끌이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훌륭한 수행 자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 반역했던 데바닷다가 육식은 절대로 안 되며, 수행승은 반드시 나무 밑에 거처를 해야 하며, 공양이나 초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이 좋으면 너 혼자서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닷다가 계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엄격한 계율을 평계로 자신을 돌보이게 하고, 그로써 교단을 분열시키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를 지키더라도 지계의 근본정신을 잊어버리고 계를 지키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도리어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계는 어디까지나 선정이라는 정신통일을 얻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훈련과 습성을 가리킵니다. 즉, 좋은 습관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태가 건전하게 되는 것이 지계의 목적입니다. 계가 바르게 지켜지게 되면 심신이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어 선정의 상태가 쉽게 얻어지고 또 완전하게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으로부터 깨달음의 지혜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열반에 이르게 되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지키는 것도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의 하나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



# 처신에 대한 계율(2)



창정한계율\_55

법경 정사  
법장원 수석연구원  
법천사 주교  
동국대 강사

## 다툼을 다시 일으키지 말라

일사부재리—事不再理, 일사부재의—事不再議라는 말이 있다.

일사부재리—事不再理는 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이는 형법상에 적용된다. 일사부재의—事不再議는 어떤 회의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일반원칙이다. 이는 이미 의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일사부재의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6군 비구들이 이미 싸움을 한 뒤에도 잘 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여 대중에 없던 싸움이 생기고 이미 생긴 싸움은 좀처럼 없어지지 아니 하였다.

이에 승가의 갈마에서 여법하게 의결하였는데도 결정된 일에 불만을 가지고 “갈마는 부정하게 행하여졌다. 갈마를 다시 해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 사실이 부처님께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만약 어떤 비구가 승가에서 쟁사를 여법하게 행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다시 일으키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6군 비구가 여법하게 끝난 쟁사事を 익히 알면서도 문제 삼고 다시 쟁사를 행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는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것과 같다.



승가에서는 한 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승가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단, 여기에는 반드시 여법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2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여법<sup>法</sup>이란『팔리율』에서는 '법에 의해, 율에 의해,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법하지 않다는 것은 곧 갈마의 무효를 의미하며 이는 무죄<sup>無罪</sup>임을 뜻한다.

따라서 쟁사는 반드시 여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여법하게 결정된 쟁사는 다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승가의 발행계<sup>發行界</sup>다.

비단 쟁사뿐만이 아니다. 각종 회의에서 한 번 결정된 사안은 번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공식기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몇몇 사람이 다시 문제 삼아 번복하는 일은 정당한 갈마도 아니요 법다운 승가라고 할 수도 없다. 특히 적법한 절차인줄 알면서 다시 거론하는 일은 계율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바른 수행자의 행이라 할 수 없다. 이는 6군 비구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이의제기는 공식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비선<sup>比肩</sup> 또는 비공식적으로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즉 공식기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기

되어야 한다. 이는 2500여 년 전의 승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승가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청규<sup>淸規</sup>라 할 수 있다. 친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여법하게 처리해야 함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승가의 쟁사<sup>爭事</sup>는 율장에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4종 쟁사는 언쟁<sup>言爭</sup>, 비방쟁<sup>非謗爭</sup>, 범죄쟁<sup>犯罪爭</sup>, 상소행사쟁<sup>上訴行訴爭</sup>이다.

첫째, 언쟁<sup>言爭</sup>은 교법이나 계율의 해석에 관한 쟁론이다. 종단의 교리나 불사법요, 계율 등 교상<sup>教相</sup>과 사상<sup>事相</sup>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정해진 법요<sup>法要</sup>나 교리는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sup>否定</sup>해서는 안 된다.

둘째, 비방쟁<sup>非謗爭</sup>은 교계쟁<sup>教競爭</sup>이라고도 하는데, 청정비구를 두고서 '계를 깨뜨렸다, 사건<sup>事故</sup>을 가졌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비방함에 따라 일어나는 다툼이다. 이는 모함과 중상모략과 같다.

셋째, 범죄쟁<sup>犯罪爭</sup>은 실제로 파계한 비구를 고발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쟁사이다. 즉 죄가 있는 비구를 갈마에 불였을 때 일어나는 다툼을 말한다.

넷째, 상소행사쟁<sup>上訴行訴爭</sup>은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구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포살이나 자자 등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 갈마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이들 4종 쟁시는 출가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계율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다툼이다. 의무를 다하고 계를 철저히 지킨다면 일어나지 않는 다툼이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법을 홍포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입장이라면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알면서도 뒤에서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올바른 행이 아니며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다.

### 나쁜 소견에 대해 충고하는 것을 거역하지 말라

나쁜 소견이나 삿된 말 하는 것을 충고하면 이를 받아들이여야 한다. 충고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악견위간계<sub>惡見違願戒</sub>라 한다. 나쁜 소견을 충고하는 것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출가 수행자가 애욕<sub>愛欲</sub>에 빠져 있어도 부처님이 설한 수행과 실천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다른 비구들이 삼갈 것을 충고하여도 따르지 않는 죄다. 악견위간계<sub>惡見違願戒</sub>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아이다 비구가 나쁜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를 음욕을 범하여도 도법<sub>道法</sub>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다른 비구 도반들이 충고를 하였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나 아이다 비구는 끝끝내 고집했다. 이로

인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만약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이 설하는 바 음욕을 행하여도 도법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그런 말을 마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면 좋지 않소. 부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소. 부처님은 무수한 방편으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행하는 것은 도법을 장애하는 것이라고 하셨소.’라고 말해야 하나니, 그 비구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세 번까지 충고하라. 세 번까지 충고해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일제이니라.”

정법을 왜곡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마땅히 충고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악견을 늘어놓는다면 이 또한 간언<sub>闇言</sub>하고 직언<sub>直言</sub>을 해야 한다. 궤변과 악견은 바른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



## 다시 제주…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엄마, 이리 와서 앉아 봐! 꽃이 예쁘네! 엄마보다는 영 못하지만.”

“늙은이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 이쁘기야 세상에 니가 제일이지!”

탁구공을 주고받듯 끊임없이 이어지는 찬사에 얼마나 예쁘기에, 하 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봤다. 별로 예쁘지 않은 중년 의 여인이, 전혀 예쁘지 않은 노년의 여인에게 꽃나무 옆을 가리키며 활짝 웃고 있다. 늙은 어머니가 구부정한 몸을 움직여 느릿느릿 꽃그늘

아래에 이르기까지, 얼룩덜룩 화장이 밀린 딸의 웃음 가득한 눈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 걷는다.

엄마가 옆에 서니까 세상 모든 꽃이 다 사들시들해진다는 딸의 너스 레에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만개한 부겐빌레아를 배경으로 브이 자 를 그리고 선 어머니의 어깨가 당당해진다. 이렇게 저렇게 몸을 움직 이고 각도를 달리해 가며 딸은 부지런히 어머니의 웃음을 담는다. 예쁘 지 않아도 예쁜 모습으로 모녀는 행복을 짹고 있다.

모녀가 온실 기득 꽃향기 같은 웃음을 흘뿌려놓고 가버린 후, 오래도록 부겐빌레아 꽃 넝쿨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그 밑에서 본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려는 뜨거운 울음. 이럴 줄 알았다. 처음 그 모녀와 마주쳤을 때부터 이미 나는 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내게도 그리운 이름, 어머니가 있었으므로.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여행지가 이곳 제주였으므로.

어머니는 뇌출혈로 인한 혈관성 치매로 4년이 넘도록 다른 세상을 사셔야 했다. 장마철에 반짝 해가 들듯 잠깐씩이나마 맑은 정신이 돌아 오곤 하던 그때, 연민과 슬픔과 후회 가득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소원 을 물었었다. …없다. 어머니의 답은 간단명료하고 단호했다. 자식에 게 짐이 되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무게 를 줄여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터.

그런 어머니를 달래고, 졸라서 얻은 답이 해외여행이었다. 그제야 돌아보니 어머니는 그 혼한 해외여행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던 젊은 시절에는 해외여행의 문턱이 높기도 했지만,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후에도 어머니는 넷이나 되는 자식 뒷바라지에 애면글면해야 했다. 노후를 준비할 겨룰이 있었을 리 없다.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젊어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시집살이에 눈물바람을 하시더니, 자식들 다 짹지어 독립시킨 후에도 어머니는 가끔, 날개 펴고 활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럴 때는 뻔하다. 근근이 꾸려 가는 살림살이가 버겁거나, 자식들 일로 속이 시끄럽거나, 아버지 수발에 고단할 때, 왜 그것들로부터 놓여나고 싶지 않았겠는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떠난 해외여행<sup>海外旅行</sup>이 제주도였다. 가까운 동남아라도 다녀올 참이었는데 비행시간이 길어 지면 뇌혈관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만류에 어쩔 도리 없이 그만,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는 해외여행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제주에 머무는 사흘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회미하다. 아니,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한 사실마저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조금 전, 꽃보다 더 예쁜 어머니라는 찬사를 연발하던

딸과, 딸의 칭송에 의기양양해 하던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면 제주도에 머무는 내내 십여 년 전의 일을 영영 떠올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내 마음의 결이 그리 곱지 못한 탓일 게다. 무슨 꽃이 저렇게 많이 피었다니? 진달래구나, 진달래야. 바람결에 흔들리는 억새를 보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억이 풍텅뭉텅 잘려나간 어머니에게는 진달래였던 억새가 산야에 지친이다.

그만 따자. 남의 밭에서 굴을 따면 안 되지. 농사짓기가 얼마나 힘든데…, 굴 따기 체험 농장이라 웬찮다는 말에도 아랑곳없이 가위를 집어 던지고 탈출(?)을 감행하시더니, 제주도 돼지는 뚱돼지라 더러워서 안 먹겠다며 입을 딱 붙이고 도리질치는 바람에 내 속이 상하기도 했었는데….'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처럼, 큰 스승 섬기듯 공경하고 예배하라.'라는 <잡보장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후회 아닌 일이 없다. 자식은 그런 존재인가 보다.

3주 일정의 이번 여행은 혼자다. 혼자니까 홀가분하고 좋은 것도 많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찹찹하다. 당초 동행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내 마음 반, 제 마음 반, 계획을 접었기 때문이다.

나는 쾌慨한 마음에, 어림짐작이지만 그녀는 서운한 마음에 둘 다 침묵시위 중이다. 내가 그렇듯 그녀도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어진다고 했던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숙소와 차량이 있다던 그녀의 말이 공수표가 되었다. 작년에도 같은 일로 기운을 빼더니 올 해도 출발을 보름쯤 남겨놓고 차량이 안 되겠다, 딱 1주일 전에야 숙소를 쓸 수 없게 됐다는 통보다. 거기다가 본인도 여행을 접겠다며, 불유쾌한 기분 떨쳐내고 즐겁게 잘 다녀오라는 오지랖까지.

1주일을 앞두고 숙소를 잡는 일부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입맛에 맞는 곳이면 비싸고, 가격이 어지간하면 날짜가 맞지 않았다. 여행의 설렘 같은 건 물 건너간 지 오래였다. 첫 단추를 잘못 뭔 채 쫓기듯 떠나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다행히 여행은 즐겁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속을 끓이고 있었을 것 같다.

작년에 너랑 함께 왔던 곳이야, 하면서 사진 몇 장만 보내도 그녀 역시 아무 일 없었던 듯 화답할 게 분명하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고 싶지가 않다. 내가 휴대전화 문자 창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것도 그런 일을 피하고 싶어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또다시, 억지로 이해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하는 것도 위선이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게 되풀이해 온 내 위선에 내가 맞으니 더 아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벗어지는 문제 중에는 말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무책임한 말 때문에 큰 상처를 입거나 거짓말로 인해 막중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오죽하면 <숏타니파타>경에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찌고 만다.’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겠는가.

나도, 그 친구도 모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가 누워서 침뱉는 격이며, 나의 옹졸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안다. 선부른 이해가 모래를 삫아 밥을 짓겠다는 오만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제주의 바람 속을 걸으며 그 답을 묻고 또 물어본다. ━





내 몸이 좀 이상하다. 몇 달 전부터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먹고 소식을 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것인지 나빠지는 것인지 몸이 좀 이상해졌다. 귀가 약아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영양제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몇 주 전부터 확실히 몸이 좀 이상해졌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먹었고, 밥의 양도 반으로 줄였다. 채소 반찬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런지 허겁지겁 먹던 버릇도 사라지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겠다는 마음도 사라졌다.

가난해서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한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음식에 대한 허영심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먹고 싶은 것은 꼭 먹어야 한다는 신념 같은 것이 나한테는 있었다. 다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좋은 음식과 많은 음식을 상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으니까. 고기에 원한을 산 것 같이, 원수를 갚아야 할 것 같이 전투적으로 고기를 먹었다. 내 나름의 맛집을 찾아 다녔고 맛이 있다면 거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

맛있는 소고기를 먹기 위해 네 시간 넘게 산길을 운전했던 적도 있었다.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는 성공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나 보다. 또,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에게도 나는 좀 뿌듯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음식을 먹고 몸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다. 그냥 좀 이상하다. 나빠진 것인지 좋아진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몇 주 전에 오랜만에 불고기를 채소 많이 넣어서 두 쌈 정도를 불이 미어지게 먹었다. 위가 작아져서 두 쌈 먹고 나니 배가 불러서 못 먹었다는 것이 억울할 정도였다. 대체로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고기의 양과 거의 비슷하게 먹었는데 그 때는 마늘이 없어서 쌈만 먹었다.

저녁에 배와 등이 심하게 간지러워서 봤더니 두드러기가 이상하게 나 있었다. 몸 전체에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부위에만 엄청 많이 나 있었다. 처음 겪는 일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을 많이 먹고 잤는데 다음날에는 팬찮아서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처음 두드러기가 나고 몇 주 뒤에 늘 가던 곱창 집에서 곱창을 조금 먹고 집에 왔더니 두드러기가 더 넓게 나 있었다. 긁고 긁어도 간지러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되니 또 멀쩡해져서 그냥 또 잊어버렸다.



집에서 육개장을 만들어 먹었는데 갑자기 두드러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몸을 다 점령해버렸다. 간지러워서 팔짝팔짝 뛰었다. 그길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왔다.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늙어가고 있는 증거라며 의사도 두드러기가 생길 때마다 약을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어쩔 때 두드러기가 났는지 생각해 보다가 고기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가족들은 고기가 원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나를 위로하고 있지만 나는 알아버렸다. 짬뽕 먹었을 때는 펜찮은데 자장면을 먹을 때는 어김없이 두드러기가 올라왔고, 닭 꼬치 한 입 먹었는데 남편이 내 손을 꼭 잡고 안 놓아줄 만큼 가려운 테를 긁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외출했다가도 배가 고프기 전에 밥 먹으러 집에 간다. 출근 할 때는 신경 써서 도시락을 싼다. 반찬은 시래기 된장 무침과 콩나물 무침. 양념을 많이 안 넣고 단출하게 만든 채소 요리들로 반찬을 싼다. 요즘은 배추가 달디 달다. 셈장 한 종지 싸고 배추 쟁어서 갖고 다니며 먹는다. 먹을 만하다. 채소를 먹으니 펜찮다.

아직 생선에서는 두드러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생선을 파는 밥 집이 근처에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아버렸다. 다 고깃집이다. 관심 갖고 보고 나서 놀랐다.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해장국 집에 갈 수도 없다. 김치찌개 집에도 못가고 순댓국도 못 먹는다. 밥값이 굳었다.  
좋은 건가?

이참에 고기를 끊고 있다. 오래 먹기도 했다. 많이 먹기도 했다. 아버지의 월급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통닭이며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고기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한테 고기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음식이었던 거다.

고기는 내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다. 오늘 저녁에 남편이 고기를 사와서 먹는데 나는 옆에서 눈으로만 먹었다. 견디기 힘들지만 버텼다. 대견하다. 다 아는 맛이라고 참견했다. 육즙이 장난 아닌 거 다 알고 있는데 맛없게 먹는다고 화냈다.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기축이라고 흰 소리를 해대다가 내가 함부로 고기를 평생 너무 많이 먹었다고 반성한다. 남편한테 곧 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다가, 나를 위해 죽어간 많은 가축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보들보들한 그 고기를 먹고 싶다가 가려운 것이 싫어서 돌아서 배추를 씹는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체식주의 비스무리하게 되어가고 있다. 몸이 좋아지려고 그러는 것인지 나빠지려고 그러는 것인지 나는 당최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몸이며 마음이 맑아지겠지. 참을성도 길러지겠지. 지구한테도 동물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



속리산 아래  
어둠이 찾아들면  
산사 처마끝에 사는  
작은 백열등  
어느새 별이 되어  
내게 말을 걸어온다.



##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묘원화 전수  
벽룡사



**발표** 협동조합 행복수업 혜봉 오상목  
**토론** 세첸 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한국 명상 지도자 포럼의 두 번째 주제는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이다. 이번 주제는 다른 주제들과 달리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마도 티베트 불교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한국에 적게 알려지고 대중화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근래 위빠사나 수행의 열풍으로 재가자와 여타 종단의 출가 스님들이 미얀마나 태국에서 많이 수행하고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보급하는 것에 비하면 티베트 불교 수행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명색이 밀교 종단의 스승인 나 역시 금강승 불교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여 부끄럽고, 이번 포럼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이번 기회에 아무지개 베워 보리라 발심한다.

혜봉 오상목님과 용수 스님은 인도 다람살라와 네팔, 프랑스, 티베트에서 직접 티베트 불교를 접하고 수행을 배웠으며, 현재 한국에서 열심히 교화 중이다. 두 분의 소개를 받고나니 기대감이 한층 고양된다.

우선, 티베트 불교에 대해 알아보자. 용수 스님은 불교를 근본불교(상좌부불교)Theravada, 대승불교Mahayana, 금강승불교Vajrayana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근본불교는 무명, 번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出離心’을 핵심으로 하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무상, 고, 무아를 개념이 아닌 실제로 이해하고, 4성제를 통해 위빠사나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번뇌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속을 벗어나고 승가를 이루며 자신과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계율을 중시한다.

대승불교는 번뇌를 자비심으로 대치시켜 나만 아끼는 마음인 자기애(아집) 속에서 풍성을 찾는 것이 반야사상이다.

따라서 나와 남을 해치지 않고 가능한 도움이 되고 궁극적 행복(해탈)과 상대적 행복을 얻도록 인도한다. 이렇듯 공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 지혜(보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실천하고자하는 일체의 노력을 포함하는 ‘보리심菩提心’을 핵심으로 한다.

금강승불교는 번뇌(분노, 욕망...)를 버려야 할 장애가 아닌 법의 문으로 보고, 오히려 불성을 찾는 방편으로 활용한다. 금강승 불교에는 ‘다낭’이라는 개념이 있다. ‘순수한 자각’이라고 직역되는데 신성한 견해를 말하며, 나와 남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말하고 행하

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이 있다고 본다. 즉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알아차리고 깨어나게 한다면 지금 이 몸 이대로 부처가 되는 것(즉신성불)이다.

따라서 티베트 불교는 자성불의 존재를 믿는 수행자의 신심, 경외심, 현심 자체가 주요 수행이며 마음가짐이다. 티베트 불교의 핵심은 ‘불성佛性’에 있으므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 않고 표현한다고 한다. 참으로 와 닿는 말이다.

번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불교를 구분하니 각 불교의 수행법이나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어 쉽게 이해되어 놀라웠다. !



## 돌이켜 보는 사랑

이이(李珥)

1536~1584

조선중기 학자,

불교와 성리학을 회통한 사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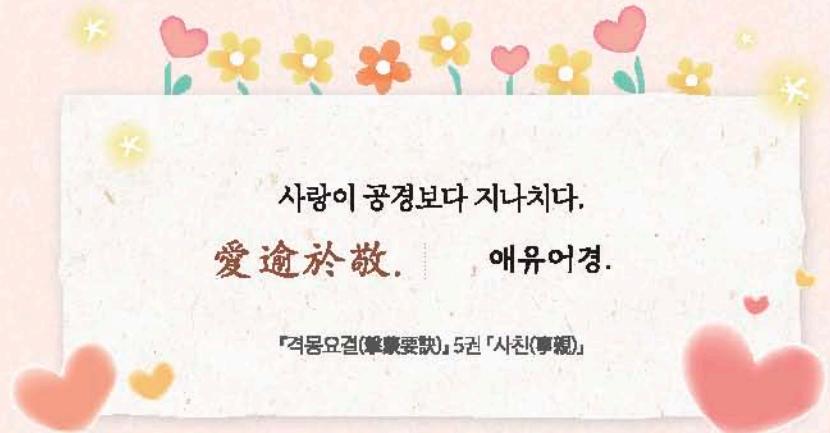


사랑이 공경보다 지나치다.

愛逾於敬.

애유어경.

『격몽요결(擊蒙要訣)』 5권 「사친(寧親)」



요즘 사람은 대부분 부모에게 양육 받기만 하고 자기 힘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만약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끝내 최선을 다해 봉양 할 날이 없을 것이다.

[今人多是被養於父母，不能以己力養其父母。若此奄過日月，終無忠養之時也。]

조선 시대 저명한 학자인 율곡<sup>儒谷</sup> 이이의 말이다. 부모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에 보답할 생각을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다가는 훗날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후회할 것이니, 얼른 정신을 차려 부모를 봉양하라는 내용이다.

그대 새벽에 시장가서 밀떡을 사고 쌀떡을 사는 것 보니, 부모님 드린  
단 말은 없고 아이들 준단 말 뿐이네. 부모님 맛보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배부르니, 아이 좋아하는 마음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에 비길 바 아니  
라. 그대여, 멱 살 돈 많이 내어 사실 날 얼마 없는 부모님 공양하소.

[看君晨入市，買餅又買糕，少聞供父母，多說供兒曹。親未啖兒先飽，子心不比親心好。勸君多出買餅錢，供養白頭光陰少。]

『명심보감(明心寶鑑)』『팔반가(八反歌)』 가운데 한 수이다. 「팔반가」  
는 부모를 향한 마음과 자식의 향한 마음이 같지 않음을 지적하여 서술  
한 글인데, 나머지 시에서 지적한 모순은 대략 아래와 같다.

부모의 조언이나 충고는 잔소리나 참견처럼 여기는 반면 아이가 조잘  
대며 쉽 없이 떠드는 소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예쁘다고 한다. 아이의  
똥오줌은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라 여겨 전혀 더러워하지 않으면서 부모  
의 눈물과 침은 싫어하곤 한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싫어하고 서로에게 미루지만,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모두 건사한다. 특히 자식은 부모의 사랑은 당연  
하고 쉽게 여기지만, 부모는 사소한 물건이라도 받으면 고마워하고  
마음에 담아둔다.

사랑이 공경보다 지나친다.

[愛逾於敬.]

이는 율곡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  
하는 마음에 미치지 못함을 통렬하게 꾸짖은 말이다. 여기서 공경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으로 바꾸어 이해해도 무방하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보다 늘 크기만 했고 작았던 적  
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아이에게 줄 것만 생각하고 부모님을 잊어버  
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김현재 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이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 고(苦)

덕현 전수  
법천사



고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이 고에서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는 고통, 괴로움으로 번역되지만, 그 어원은 '힘들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이란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 또는 그러한 느낌을 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와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 가운데 느끼는 감정을 크게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삼수라하여 괴로움[苦], 즐거움[樂],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불고불락[不苦不樂]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는 동안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지만, 괴로움은 오래 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인 듯합니다. 또한 즐거움은 잠시 그때뿐이고, 괴로움은 지속적이며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중생의 괴로움을 여덟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팔고<sup>八苦</sup>라 하는데, 저는 애별리고<sup>愛別離苦</sup>가 가장 크게 와 닿습니다.

애별리고는 대상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옆에 누군가 함께 지내다가 잠시 떨어져 있으면 마음은 허전하고 쓸쓸해집니다. 그런데 지극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과 헤어진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부부, 아내와 아이를 외국에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들, 전쟁으로 생이별한 남북이산가족, 부모를 여읜 자식,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이별은 누구에게나 슬픔을 안겨 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고,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 애恸함은 몇 배가 됩니다. 이별할 때 아쉬워 말고 있을 때 많이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별리고와 정반대가 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원중희고<sup>冤憎恚苦</sup>입니다. 원수같이 미운 사람과 마주치는 괴로움입니다. 중오할 만큼 미운 사람은 아니어도 싫은 사람 한 명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은 사람을 매일 마주쳐야 한다면, 참으로 괴로운 일이겠지요. 아마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괴로움이 가득 한 곳이 바로 지옥이겠지요.

그러나 미움, 괴로움, 근심, 걱정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질없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sup>苦</sup>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곧 고<sup>苦</sup>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sup>苦</sup>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sup>苦</sup>는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



# 사랑을 다시 정의하다

사랑초- Purple shamrock

이태용  
원예 교육가



## ▼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에는 단지 몇 마디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그 뜻을 전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빠, ‘경제’가 뭐야?” TV 뉴스를 보다가 아이가 물습니다. “응, 경제란 건 말이지.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 이용하는 활동을 함. 또는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말한단다.”

만약 이렇게 사전에 적힌 대로만 아이에게 답을 해 준다면 어떨까요? 다시는 아빠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몇 마디 문장만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단어들이 넘쳐 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밉다’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미워서’ 혼내 주고 싶을 테고,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 여학생은 마음에 안 드는 자신의 얼굴이 ‘밉게’ 보일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냉전 중인 부부는 자신을 이해 못하는 배우자의 뒷모습만 봐도 ‘얄미운’ 마음이 들겠지요.

이처럼 ‘밉다’는 단지 두 음절의 단어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어에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 ▼ 사랑스러워서 사랑초니?

저는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사랑초를 처음 만났습니다. 언뜻 베란다 화분 위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나비가 아니라 사랑초 잎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랑초란 식물을 몰랐던 저는 어머니에게 사랑초란 이름을 듣고 매우 궁금했습니다.

‘잎 모양이 하트랑 비슷해서 사랑초란 이름이 붙었나?’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책을 뒤적여 봐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궁금증만 남긴 채 사랑초는 저에게 서서히 잊혀져 갔지요.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는 집 근처 빵집 앞에서 우연히 사랑



초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졌습니다.

어느새 저와 사랑초,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의 끈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어머니가 늘 보여 주시던 미소가 사랑초를 통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사랑초구나.’

사랑초,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 식물의 공식 명칭은 옥살리스<sup>Oxalis</sup>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사랑초는 옥살리스 중에서도 보라색 잎의 품종만을 가리키는 이름이지요. Oxalis는 그리스어로 ‘시다’라는 뜻인데, 잎과 줄기를 깨물면 신맛이 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옥살리스의 이 신맛을 뱀처럼 독을 가진 동물들이 매우 싫어해서 사람들이 호신용으로 옥살리스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옥살리스는 아열대 지방이 고향이며, 품종에 따라 잎의 색깔과 무늬가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잎 색깔이 보라색인 품종, 즉 사랑초가 가장 친숙하지만 이 외에도 잎 색깔이 녹색인 품종, 한 잎에 녹색과 보라색이 함께 있는 품종을 비롯해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 ❖ 사랑은 나로부터 너에게 가는 것

사랑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밤낮으로 달라지는 잎과 꽃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

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낮에 사랑초를 쳐다보세요. 조그만 꽃은 활짝 피어 있고, 잎 또한 나비 날개처럼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햇빛이 쟁쟁 내리쬐는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해가 지고 사방이 어스레해졌을 때 다시 한 번 사랑초를 쳐다보세요. 활짝 피어 있던 꽃은 몸을 웁츠리고, 잎 또한 나비가 날개를 접듯 암전히 포개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밀려오는 졸음에 꾸벅꾸벅 주는 아이의 모습이지요. 사랑초는 이런 행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합니다. 싫든 좋든 아침에 일어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잠이 드는 사람들처럼 사랑초 또한 자신만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하루를 보내고 일생을 보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마음에 사랑초에게 물어보지만 사랑초는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단 하나 힌트를 남길 뿐인데, 그 힌트는 바로 꽃말.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입니다. 사랑은 너에게서 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너로 간다는 것을 알려 주지요.

그리고 보니 사랑초의 꽃말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정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연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는 사랑초를 보며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뿐이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다. 다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정신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 우리의 심심한 일상에 지혜의 기회를 던져 주기 위해 꿈처럼 잠시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갈 뿐이다.

그렇기에 삶을 조종하려 들지 말라. 삶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 들지 말라. 내가 원하는 삶만을 살고자 애쓰지 말라. 그런 삶은 없다. 내 앞에 일어나는 삶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째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감사하라.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만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모든 문제를 부른다. 순탄한 삶만을 바라는 생각이 도리어 순탄하지 못한 삶을 만들어 낸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생각이 많을수록 ‘그런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만다.

‘이러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모든 생각을 놓아버릴 때 삶은 저절로 삶 그 본연의 길을 걷게 된다. 편안함을 갈구할수록 더욱 불편해지고, 안정을 갈구할수록 삶은 더욱 불안해진다. 편안, 안정에 대한 욕구를 놓아버릴 때 삶은 순조롭다.

‘자녀를 망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이란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어지간히 피가 나더라도 ‘일어나자.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응원을 해 주셨을지언정 호들갑스레 달려와서는 일으켜주고 옷을 벗어 주지는 않았으셨다.

대학 때는 될 수 있으면 알아서 학비며 용돈도 벌어 쓰고 정 힘들 때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고, 우리 자식들에게 대학 입학 이후에는 알아서 학교도 다니고 취직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손 벌릴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해 오셨다. 괴로운 상황에서, 혹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나 좌절 속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는 것은, 그것은 무관심이나 냉정 그 이상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배려이다.

보통 사람들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향해 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피이며 둘째는 투쟁이다. 회피는 괴로움과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이다. 괴로움을 피해 도망칠 곳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다른 관심사나 일을 찾아 나서면 잠시는 그 문제를 잊은 듯해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인연을 만나면 다시 되살아난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쓴다. 괴로운 문제와의 투쟁을 선포한다. 괴로움을 향해 화를 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나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물론 전자보다는 조금 더 넓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 또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기도나 수행은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 그 문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 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부분을 창으로 찌르고 칼로 자르는 상상을 하면서 그 부분의 병이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어떤 수련단체에서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라며 무아를 중득하려면 몸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몸을

칼로 자르고 폭탄으로 터지게 하는 등 몸을 해치는 각종 방법을 동원해 상상으로 몸을 죽여 없애라고 권하기도 한다.

이 두 방법은 모두 지혜로운 중도의 길이 아니다. 부정하면서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것이나 그 문제와의 투쟁을 통해 이겨내려는 것 모두 극단의 방법일 뿐이다.

삶에서 부딪치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중도의 길은 회피하거나 투쟁하는 양 극단을 떠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아픔이 오면 아픔이 오도록 그저 내버려 두라. 아픔이 내 존재 위를 스치고 지나가도록 그저 놔두고 다만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스쳐지나 가는지를 묵연히 바라보기만 하라.

아픔을 나와 둘로 나누어 놓고 나면 아픔으로부터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싸워 이기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만, 아픔을 나와 둘로 나누지 않고 내 존재의 일부분으로, 내 삶의 하나로써 가만히 포개어 놓고 나면 더 이상 아픔과 싸울 필요도 도망 칠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아픔과 괴로움과 좌절을 다루는 중도적인 수행 방법이다. 1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힐슈타트를 떠나 3시간 뒤 슬로베니아 북서부에 위치한 크란에 도착했다. 크란은 인구가 53,000여 명의 작은 도시였다. 그래도 인구 200만의 슬로베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블레드 성을 찾았다. 1011년에 지어진 것으로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했다. 성은 블레드 호수를 끼고 까마득하게 높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다.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해자\*\*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 위로 놓여 진 목재 다리는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쇠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유럽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성문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전투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성위에 올라서니 저 멀리 알프스 산맥에 만년설인 듯 헷美貌을 받아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절벽 아래 블레드 호수는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흘렀고, 호수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 하나가 그림처럼 떠 있었다. 일행 중 누군가가 “달력에서 봤던 그림이다”라고 소리를 쳤다.

우리는 나룻배를 타고 달력에서 봤다는 블레드 섬을 찾았다. 섬에는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만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슬라브

인들이 지바 여신을 모셨던 신전이었던 것을 8세기에 성당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섬은 고즈넉했다. 하늘을 향한 교회의 첨탑은 오히려 쓸쓸함을 더 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은 종을 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을 3번 치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연을 갖고 있었다. 사연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남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에 종을 달기를 소원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나 그 수녀가 죽은 후 이 사실을 전해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그녀를 대신해 종을 기증하였고 이후 이 종은 '행복의 종'으로 불리어 진다고 한다.

성당을 나와 섬 둘레 길을 천천히 걷다가 한 곳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호수 저편 절벽위로 블레드 성이 보이고, 그 뒤로 눈 덮인 알프스 산맥, 눈앞의 호수가 어울려 한 폭의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일행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와! 하는 감탄의 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의 초청으로 방문한 북한 김일성 주석도 이곳 경치에 빠져 5일간이나 머물렀다고 했다.

우리는 섬을 빠져 나와 다음 행선지 크로티아 수도 자그레브로 향했다. 달리는 고속도로 옆으로 공장지대, 도시는 보이지를 않고 황량한

목초지만 끝없이 펼쳐졌다. 인구 4백만의 크로아티아는 농업과 축산업이 주산업이지만, 지금은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를 달렸을까, 버스가 국경 검문소에 도착하자 승객들을 일제히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개인별 여권 심사를 했다. 유럽에서는 각국의 통행이 자유롭다고 알고 있었던 나로서는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크로아티아는 유럽 국가간에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게 한 생겐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바다를 통하여 북아프리카와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불법 난민을 막느라 국경 감시가 심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했다. 불법난민의 청정국가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얼마 전 제주도에 들어온 불법 난민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자그레브는 인구가 백만으로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여행자들은 자그레브를 동유럽의 관문으로 여행의 출발점이자 종점이라 한다. 구시가지의 중심인 텐 엘라치치 광장 한가운데에는 1848년 헝가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요셉 엘라치치 장군의 기마동상이 광장을 지키고 있었다. 제국과 열강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크로아티아의 역사를 말 해주고 있었다.

광장을 벗어나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가니 칭틀 언덕에 자그레브 대성당이 나타났다. 108m 높이의 쌍둥이 첨탑은 자그레브 도시 어디에 서도 보인다고 했다. 1094년에 짓기 시작한 성당은 외부의 침략과 대지진 등으로 파괴 되었다가 1906년에 네오고딕 양식으로 재건되었다고 한다. 성당 안은 최대 5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다고 하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당을 나와 일행들이 가는 길을 따라 내려갔다. 돌문이 있는 한쪽 벽면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무엇인가를 끊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기예수를 안은 성모마리아 그림이 철문으로 가려진 벽면에 걸려 있었다.

1731년 자그레브 대화재 때 주위가 전부 전소가 되었으나 유일하게 이 그림만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곳의 성모마리아 그림은 자그레브를 지키는 수호성인이 되었고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다고 한다.

다시 우리는 걸음을 옮겨 성 마르코 성당에 도착했다. 성당은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갈색과 청색, 그리고 흰색의 타일 모자이크 지붕이었다. 지붕 오른쪽에는 자그레브를 상징하는 문장이, 왼쪽에는 크로아티아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각 지방 도시마다

각자의 문장이 있다고 했다. 아마 유럽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민족적 역사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봤다.

처음 출발했던 엘라치치 광장으로 되돌아 왔다. 어느새 주위는 저녁의 해거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광장은 쓸쓸함으로 다가오고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다. 밤이 되어서야 슬룬의 어느 호텔 숙소를 찾아들었다. 다음 행선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



\*서임권: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스틸사진: 드라마나 영화, 광고필름 가운데 한 장면만 골라내어 현상한 사진.

# 까마귀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겨울보다 먼저 우리를 찾는 손님들이 있다. 겨울철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더 일찍 큰기러기, 흑두루미의 도착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리고 한 지자체의 까마귀 폐 도착 소식도 들렸다.

과거에는 농작물 피해와 배설물 등으로 연신 민원에 시달리던 곳이지만 까마귀 폐를 지자체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지역의 상인들도 반기는 내용이었다. 누구나 알듯이 까마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다. 게다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배설물로 인해 불편함까지 주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골치덩이를 지금의 생태관광자원으로 인식 전환을 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에 대해 오늘과 같은 일방적인 편견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이한 울음소리와 검은 색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반포지효反報之孝 즉 '부모를 섬기는 효성이 지극한 새'로 알려져 유교 사회였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긍정적 이미지가 더 커울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까마귀가 어미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둥지에서 다 자란 새끼들이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이듬해 태어난 동생들을 어미와 함께 돌보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여러 마리가 새끼를 먹이는 과정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끼들이 부모를 공양하는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효자 새'로 알려진 동양에서와는 달리 서양에서 까마귀는 '영리한 새'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스로 깨기 힘든 호두를 도로나 철로 위에 옮겨놓은 뒤 차량이 지난 후 깨진 호두를 찾아먹으며 또한 일부 논문에서는 사람을 인식하기도 한다고 한다.

자신들을 해코지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나타나면 경계음을 내어 서로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더 재미난 것은 해코지 당해보지 않은 까마귀도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안다는 것이 더 재밌다. 인상착의를 다른 새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보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까마귀의 지능과 관련하여 재미나는 실험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다. 시험관에 물을 담고 수면에 벌레를 띄웠을 경우 까마귀의 문제해결 능력을 본 실험이었는데 실험결과 참여한 까마귀는 '이솝우화'처럼 돌을 집어넣어 수위를 높여 벌레를 먹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다른 까마귀 종류 중 일부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등 지능과 관련한 행동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고, 게다가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희를 즐길 줄 아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새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나쁜 선입견을 없애주는 주된 실험의 대상이 까마귀이다. 그만큼 지능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높다.

까마귀 속에 속하는 4종의 까마귀들은 형태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몸의 크기와 부리 모양 그리고 각각의 날개의 길이 차이 등으로 구분한다. 큰부리까마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대략 까마귀, 떼까마귀, 갈까마귀 순이다. 큰부리까마귀와 까마귀는 국내에서 텃새로 서식하는 반면 떼까마귀와 갈까마귀는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다. 까마귀의 경우도 겨울이면 북쪽에서 번식한 무리가 남하하여 개체수가 증가한다. 까마귀류는 대부분 잡식성이며 동물의 사체나 과일, 곡식, 곤충 등을 먹는다.

태화강 지역에 큰무리로 도래하는 까마귀는 떼까마귀다.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걸쳐 흔히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다. 호남평야, 김제평야, 울산 태화강 등 농경지에 갈까마귀와 함께 떼를 지어 월동한다.

월동지에서 먹이는 주로 곡식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검은바람까마귀 *Black Drongo*와 회색바람까마귀 *Ashy Drongo*의 경우 몸은 전체적으로 검거나 회색이며 꼬리가 길고 끝이 부채모양으로 넓고 갈라져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까마귀와는 형태에서 거리가 있다. 또한 대체로 동남아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국내에는 드물게 지나는 나그네 새이다.

대개의 경우 까마귀들은 번식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을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이는 먹이를 찾는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천적에 대비하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한 맹금류가 나타날 경우 주변의 까마귀류는 물론 까치까지 협동하여 천적을 몰아내거나 위협을 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수리처럼 천적이라기 보다는 먹이 경쟁자를 내몰기 위해 혼성군을 이뤄 구역 밖으로 내쫓기도 한다.

떼까마귀나 갈까마귀의 경우 수백에서 수만 마리까지 큰 무리를 이루는 데 이들이 한꺼번에 비행하는 모습은 겨울 풍경의 또 다른 별미로 생태관광 자원으로써 가치가 높다. 과거에는 소규모로 전국에 걸쳐 국지적으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식지가 줄고 개체수 마저 줄어든 탓에 일부 대단위 농경지 주변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펄자의 경우도 어린 시절 끊어진 연을 따라 푸른 잔디밭 같은 보리밭을 내달리다 시커먼 떼까마귀 무리 속으로 연을 잊어버린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음의 후손들은 이러한 진풍경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떼를 지어 찾아온 검은 손님들이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어 이들의 서식지가 늘고 잘 보전되고, 검은 무리의 군무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해마다 겨울이 오면 첫 눈과 더불어 까마귀 떼를 기다리는 시절이 오기를 기대한다. ■

# 동전을 둘로 나눈 형제



옛날 마라국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병이 매우 위중하여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 아들에게 당부하였다.

“내가 죽은 뒤에는 재산을 잘 나누어 가져라.”

두 아들은 분부에 따라 아버지가 죽은 뒤 두 뜻으로 재산을 나누었는데, 형이 이우에게 말하였다.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때 어떤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물건 나누는 법을 가르쳐 공평하게 가지게 하리라. 지금 있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두 뜻으로 만들어라.”

노인의 제안에 솔깃한 형제는 그 방법을 물어보니 “웃은 반을 찢어 두 뜻으로 만들고, 밥상이나 병도 부수어 두 뜻으로 만들고, 둥이나 항아리도 부수어 두 뜻으로 만들고 돈도 부수어 두 뜻으로 만들어라.”

이리하여 모든 재산을 두 뜻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이것은 마치 저 외도들이 분별하여 닦는 것과 같다. 모든 외도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부수어 두 조각을 내는 것과 같다.

## 가을걷이

지현 전수  
자식사



“아이고, 정사님 잘 좀 던지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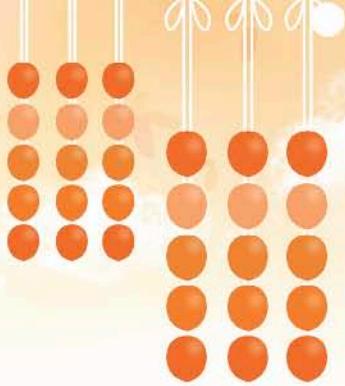
“잘 좀 받으소~”

감이 떨어질 지점 쯤 밑에서 보자기를 펼쳐 들고 허둥대는 두 사람 만큼이나 자석사의 가을걷이(?)가 분주하다. 서원당 안에서 창가로 시선을 두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던 붉은 대봉감이 우르르 떨어지는 찰나이다. 하늘 높이 키를 뻗은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먹이까지 나누어 준 감나무 덕분에 새가 종일 제재거리니 도심에서는 귀한 자연의 소리를 선사받기도 했다.

한 철 내 여러 눈들과 마음을 앗아가던 감들을 더 오래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커지지만 어쩔 수 없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지난 자정일에는, 작년에 비해 유난히 알이 굵고 실한 토란을 캐어 노보살님들이 껌질을 벗겨 삶은 다음 햇빛과 바람에 말려 두었다. 들깨로 뿔는 등 내년 공양실 반찬에 챙챙이 맛을 낼 식재료이다. 봄에 도량 구석구석 씨를 뿌리고 아기 돌보듯 가꾼 보살님 덕분에 유기농 채소로 한 철동안 공양시간이 건강하고 풍성했다.

마당 귀퉁이 작은 텃밭에는 오래지 않아 뽕혀질 배추들이 절은 초록의 이파리를 드리우며 아무지게 자라주고 있다. 이제 배추 수확



을 끝으로 자석사의 덧발은 한동안 결 고운 고요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한 때의 분주함이 일시 정지 되고 두터워진 삶의 두께가 다음 해를  
기약하려는 서로의 암묵적인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 되리라 한다.

'눈 깜짝 하고 나니 일 년이 훌렸다'라는 어느 보살님의 농 섞인 한탄  
이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다. 굳이 곱씹지 않아도 세월의 물살은 유유  
히 흐른다. 나 역시 돌아보니 많은 것에서 반환점을 훨씬 들었다는 것  
을 부인할 수 없다.

삶의 마디를 잘라 그 나이테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굵고 선명해진  
선들이 떠를 두른 나이에 이르렀다. 교화 연륜마저 10년이라는 능선  
을 넘었건만 발밑조차 다지지 못한 상황이라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이래저래 정돈되지 못한 삶의 혼적들이 읽지 않은 책들만큼이나 수  
북히 쌓인 듯 해 한동안 자책의 시간을 가진다.

여기저기 집적대기만 하고 완성되지 못한 일들 또한 마음 밖에서  
나뒹군다. 하지만 그런 완성되지 못한 시간들을 살면서 내가 점차 보  
이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대며, 나 혼자 뒤떨어진다는 불안함과 조급한  
마음만 절실했을 뿐 정작 내가 거둬야 할 결실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란 걸 알게 되었다.  
삶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생기는 여백이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는 귀한 경험으로 만나는 소실점이 되리라는 것을.....

조급할수록 더디지는 것이 많다.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것이 많다.  
열매와 잎을 떨구어 낸 나무가 가벼워 보인다. 매끈해진 가지와 가지  
사이의 빈 공간으로 하늘이 더 잘 보인다.

도량에 흐드러지게 편 국화가 오고가는 발걸음에 향기를 뿌린다.  
쌓인 책들은 지금부터 읽으면 되고, 마음의 번잡함은 덜어내면 된다.  
속 풀의 가을걷이가 다만 풍요롭기를 바란다.

그 날, 감을 딴 것이 아니라 인생 가을을 딴 건 아닐까.▲



## 홍차를 맛있게 우려 마시는 방법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홍차를 더욱 맛있게 우려 내 드시려면 필요한 다구와 사전에 알아 두어야 할 지식이 갖추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영국에서는 골든 룰스(golden rules)이라고 하고 찻잎이 지니고 있는 풍미를 살려 가장 효과적으로 우려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구의 이름과 예열하는 법, 좋은 차를 선택하는 법, 차의 양을 잘 계량하여, 좋은 물과 함께 차를 우려내는 적절한 시간, 차의 농도를 고르게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 합니다.

### 정통으로 홍차 우리기

① 차 도구 예열 티포트(차 주전자)와 찻잔은 뜨거운 물을 부어 예열 합니다. 예열이 안 되면 물의 온도가 떨어져 차의 성분이 제대로 우려 지지 않아 맛과 향이 못합니다.



● 차 양 조절 예열한 물은 버리고 차를 티포트에 넣습니다. 1인분의 양은 1티스푼(약3g정도)이고, 좋은 차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차이며, 일반적으로 홍차는 제조일로 1개월 정도 지난 것이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홍차는 발효차라 제조 후에도 계속 숙성이 진행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물 끓기 신선하고 좋은 물을 100도 이상 충분히 끓여 차가 담긴 티포트에 붓습니다. 물이 다 끓고 나면 물의 기포가 가라앉은 후에 붓도록 합니다. 1인분의 물 양은 180ml이며 기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물이란 냄새가 나지 않고 대기 중의 산소가 많은 연수이면 좋습니다.

● 차 우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찻잎이 크면 3~4분 정도, 잘게 부순 찻잎이면 2~3분이고, 미세한 입자로 된 티백은 1~2분이 적당합니다. 차가 우려지는 동안에 티포트에 티코지(티포트 덮개)를 씌워 찻물이 식지 않도록 하고 시간조절은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이용하면 더 나을 것입니다.

● 차 따르기 시간이 다 된 차를 스트레이너(걸음방)로 걸러 여분의 티포트에 부은 다음 찻잔에 따르면 됩니다. 여분의 티포트에서 차를 따르면 차의 농도를 조절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마시기 홍차는 뜨거울 때 마시기를 권하는데 뜨거울 때 마시면 그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 티백으로 홍차 우리기

- 컵을 뜨거운 물로 예열합니다.
- 충분히 끓인 물을 컵에 붓습니다.
- 티백 한 포를 옆으로 비스듬히 컵의 물에 넣습니다.
- 컵에 덮개를 덮고 연하게 먹으려면 30초(혹은 10초씩 3번), 진하게 먹으려면 1분 동안 우리면 됩니다.
- 시간이 다 되면 티백을 가만히 건져 내고 이때 짜거나 혼들어서는 안 됩니다.

## 바리에이션(변형) 티

바리에이션 티는 특유한 풍미를 즐기고자 하여 홍차에 여러 가지 첨가물을 가미하여 변형시킨 차를 말 합니다.

- 밀크 티 차와 우유가 혼합된 음료로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마시는 모닝 티로 많이 마시며 우유가 홍차의 맵은맛을 부드럽게 해 매끄러운 식감을 선사합니다.
- 아이스 티 뜨겁게 우린 홍차를 얼음을 넣어 차게 마시는 것이 기본 하지만 첨가하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 파이스 티 홍차에 향신료를 배합한 것으로 마살라 차이가 대표적이며 이는 홍차와 우유, 인도식 향신료를 함께 넣어 끓인 음료입니다. 향신료로는 시나몬, 육두구, 카다멈, 클로브, 생강, 후추, 등을 사용합니다.

● 플레이버리 티 천연향료나 과일 등을 인공적으로 함유하여 만든 차로 정향, 사과, 꽃잎 등을 더하여 만든 차입니다. 과일이나 꽃의 풍미가 홍차와 어울려 다양한 맛과 시각적 즐거움을 줍니다.

● 허브 티 각종 허브(향료식물)를 홍차에 띄우거나 함께 우려낸 차를 말하며 민트 티, 로즈 티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 티 편치 인도의 왕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마셨다는 음료로 힌두어로 5를 의미하며 아이스티에 과일 5종류를 넣고 허브, 쟈, 와인 등을 넣어 마치 카테일처럼 마신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 티푸드

티푸드는 차와 곁들여서 먹는 간단한 음식을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홍차를 마실 때 티푸드도 중요하게 생각해 빵 문화가 발달하였다고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스콘, 잉글리쉬 머핀, 샌드위치, 마들렌, 파운드케이크, 데니쉬 페스트리, 파이, 푸딩 등 영국 전 지역마다 다양한 맛의 티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3단 스탠드로 티푸드를 준비할 때 제일 아래에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작은 샌드위치를 2단에는 비스킷, 스콘, 등을 놓고 맨 위에는 케이크, 초콜릿 등을 놓아 웃칸으로 갈수록 달콤함을 즐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



# 삶과 죽음 사이

법일 정사  
수인사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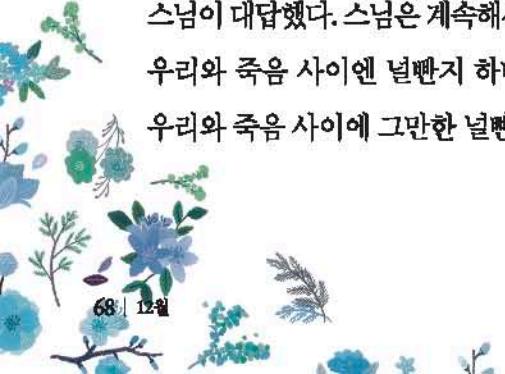
언젠가 한 스님이 바다 여행을 하기 위해 배를 탔다. 승객들은 배를 타면서 습관적으로 스님을 향해 합장하고 바다 여행의 안전을 기원했다. 이에 스님은 “죽음을 알도록 하라. 죽음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라며 계속하여 외우고 있었다. 마치 주문이라도 외우는 것 같았다.

얼마 후에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절려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며 구원해 줄 것을 신에게 기원했다. 그런데 스님은 조용히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폭풍이 멈추고 하늘과 바다가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내내 평온했던 스님에게 물었다. “그사나운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와 죽음 사이엔 이 배의 나무 널빤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오. 알고 있었소.” 라며 스님이 대답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바다에선 언제나 그렇소. 우리와 죽음 사이엔 널빤지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나 육지에서는 우리와 죽음 사이에 그만한 널빤지조차도 없다오.”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한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말고 더 무엇이 있는가. 이 숨도 들이쉬기만 한다거나 내쉬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삶과 죽음을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 숨 쉬는 것을 나눌 수 없듯이 삶과 죽음 또한 나눌 수 없다.

‘삶과 죽음을 불여라. 하나가 될 때까지’!



## 정각 음악제

여순애  
자식사교도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불교총지종 정각사 서원당에서 음악제가 개최되었다. 우리 만다라합창단은 '두꺼비, 둘강달강 점속곡'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선곡해서 불렀다. 나도 처음으로 발표회를 가져보게 되었다. 지휘자 선생님의 탁월한 실력은 무대에 오르는 전까지 발휘되었다. 가사 외우기부터 배에서 울려 나오는 발성연습을 하였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부처님께 잘 할 수 있기를 빌었는데 정말 맑은 정신으로 가사가 선명하게 생각 나는 게 아닌가! 나만 그러한 게 아니라 우리 만다라 합창단의 저력이 무대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많은 연습과 개인의 노력이 한 번에 실력을 표현하는 게 발표회라더니 정말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의상인 검은 치마와 꽃분홍 블라우스는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였다. 보살님들의 환호와 같은 박수를 받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다.

공연은 '정각사 바라밀 밤벨 연주단'의 연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제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밤벨팀 연주를 보게 되었다. 공연 횟수를 거

듭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다. 다음으로 동해중학교 댄스팀이다. "재롱잔치를 한다고 생각해 달라"던 학생의 말처럼 유쾌한 공연이었다.

모두들 젊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공연 중간중간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었는데 당첨되는 기대를 해보는 재미가 있었다. 난 걸리지 못했지만 1등과 2등이 우리 만다라 합창단 단원이 되었다. '부처님께 공덕을 많이 쌓은 단원에게 상을 주었다.' 생각할 만큼 신기한 수상이었다.

국악 공연이 끝나고 초청되어온 홍법사 까따모례, 진각종 유가 합창단, 혜원정사 혜원 합창단, 범어사 범어사 합창단, 이렇게 공연되었다.

초대에 응해주신 합창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른 팀의 공연을 보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사원 합창단들 지휘자 선생님들의 중창단 노래가 이어졌다. 다른 합창단과 우리 합창단 모두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앵콜을 외치기도 하면서 마음껏 웃었다. 아쉬운 시간과 더 나은 실력을 보였음 하는 아쉬움으로 서원당에서 내려왔다. 전수님들이 팝콘과 솜사탕을 만드시고 부산 지회 간부님들께서 전을 부치시는 등 부스 활동에도 모두들 손을 모았다. 점심으로 비빔밥을 주었는데 주방에서 많은 보살님들이 수고 하셨다. 모두들 정각 음악제를 빛내어 주셔서 지면으로 나마 감사함을 표한다. ♪



## 오상성신관 ①

김제동  
법장원 연구원

마음속의 외침에 눈이 뜬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밀의 관법, 즉 오상성신관<sup>五相成身觀</sup>을 뒤아 진정한 깨달음을 열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오상성신관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깃든 대비로자나를 사실처럼 양지<sup>妄執</sup><sup>1)</sup>하고, 그 신묘한 작용을 실현하기 위한 5단의 관법으로, 첫째는 통달본심<sup>通達本心</sup>, 둘째는 보리심<sup>菩提心</sup>, 셋째는 성금강심<sup>成金剛心</sup>, 넷째는 중금강신<sup>重金剛身</sup>, 다섯째는 불신원만<sup>佛身圓滿</sup>이다.

먼저 첫 번째 통달본심으로 설명하자면,『대일경』주심품<sup>住心品</sup>에 “실제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 각자의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본심<sup>本心</sup>인 보리심, 즉 깨달음의 마음, 나아가 말하면 대비로자나의 어떤 것이 될지를 양지하고 그 본성에 통달하기 위한 관법이다.

천태에는 우리 개이<sup>介離</sup><sup>2)</sup>의 일심을 가지고 즉공<sup>即空</sup>, 즉가<sup>即假</sup>, 즉중<sup>即中</sup>으로 보고, 화엄에는 이 일심을 곧바로 진여라고 하여, 법계로서 그 묘용을 보지만, 이것은 모두 추상적인 뜻을 보기 위한, 즉 이치를 관찰(理觀,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금강정경』에 나오는 이 통달본심관은 이 우리의 본심을 살피기 위해 월륜이나 금강저 같은 사물을 가지고 하므로, 이것에 밀교의 특색이 있다.

그 현상계의 구체적 사물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事觀, 사관)인 통달본심관의 방법이 어떠냐면,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음절다발라저미등가로미<sup>電賀多詠頌直微微息等句</sup>, o citta-prativedhakaromi(용·찌마·보라미·해다카모미)<sup>2)</sup>라고 하는 밀어<sup>密語</sup>를 송<sup>送</sup>하며 자기 마음의 모양을 마치 월륜과 같다고 관념하는 것이다.

이따금 우리의 항상 분별하고 의식하는 마음은 때로는 악을 기도하고 때로는 추를 택하며 반드시 청정하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은 마치 진흙에서 생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항상 청정하고 본래의 지혜 광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만월<sup>滿月</sup>이 맑고 깨끗하며 광명무한한 것과 같다. 이것이 깨달음의 당체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당체인 보리심에 우리가 통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으로 송하면서, 마음에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월륜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

1)뜻을 기른. 자기가 마음먹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을 이른다.

2)개이(介離): 가장 젊은 사인이 현재 1찰나의 마음을 개이의 일념 또는 개이의 미음이라 한다

# 개회

## 開會

開 - 개

모임 - 회

① 회의나 회합 따위를 시작함.

또는 의회, 전람회, 박람회 따위를 열.

'회의 시작'으로 순화.

② (불교용어) 제거하고 진실한 가르침에  
들게 함.

③ (불교용어) 방편을 버리고 진실에  
들어간다는 뜻.

불교에서 쓰는 <개회(開會)>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과는 다르다.

불교사전(운허지음, 역경원 간)에 개는 방편  
이 방편임을 명백하게 열어 놓은 것이고,  
회는 방편이 곧 진실한 법이라고 화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좀 어려운 해설이지만, 이는 미망과 탐욕에  
기득 찬 중생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교설이나



수행법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불법을 깨닫게 해주려는 방편이므로 서로 차이가 없는 하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법화경 방편품에 사람마다 그 타고난 근기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교법이나 수행법도 다르다고 한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모두 방편이었다고 한 것이 곧 <개>이고, 그러나 이런 갖가지 가르침은 결국 불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하나로 귀일한다는 것이 <회>이다.

즉 불도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길을 설했으나 궁극에는 한 길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글자 뜻대로 어떤 회의나 모임을 시작하는 것 또는 의회 등을 여는 것을 개회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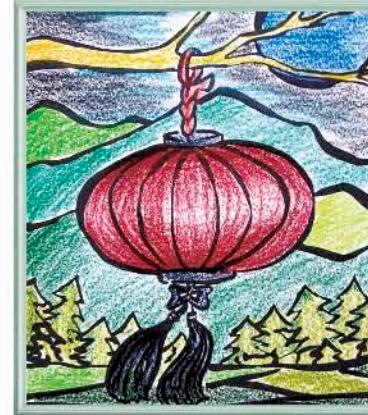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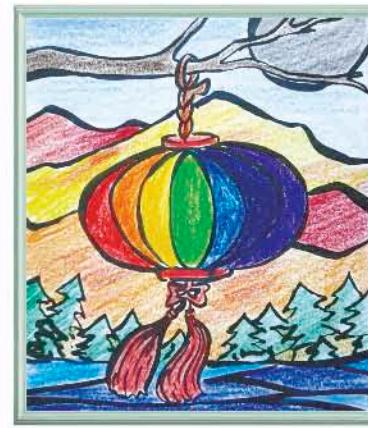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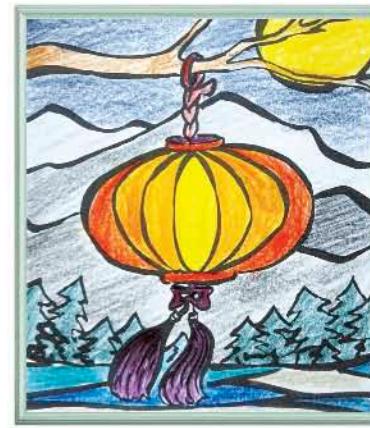
▲ 대전 윤복희



▲ 수원 김태경



▲ 수원 정선희



▲ 울산 이유정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b>공식불공</b>	매일 오전 10시	<b>부처님오신날</b>	매년 음력 4월 8일
<b>자성일불공</b>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b>월초불공</b>	매월 월초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매년 양력
<b>신년불공</b>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b>종조탄신일</b>	매년 양력 1월 29일	혜발제(우관제)	매년 양력 7월 15일
<b>종조법도절</b>	매년 양력 9월 8일	향교제	매년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종 연중 불사

<b>신년불공</b>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b>상반기, 하반기 전호국가불공</b>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등 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흡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b>월초불공</b>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b>자성일 불공</b>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종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b>서울, 경기교구</b>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승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번길 15 (하디원동)	(031)751-8685
벽봉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b>실지사</b>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b>경심사</b>	02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b>지인사</b>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b>총지사</b>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 충청, 전라교구

<b>만보사</b>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b>백일사</b>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b>법황사</b>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b>혜평사</b>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b>흥국사</b>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떠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b>증원사</b>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 대구, 경북교구

<b>개천사</b>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b>건화사</b>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b>국광사</b>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종암로 77 (동부동)	(054)772-8776
<b>단음사</b>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b>선림사</b>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현동로 79-8	(054)261-0310
<b>수계사</b>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b>수인사</b>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b>승천사</b>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b>제석사</b>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 부산, 경남교구

<b>관음사</b>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b>단향사</b>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b>덕화사</b>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b>밀행사</b>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b>법성사</b>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삼로 82-1 301호 (조량동)	(051)468-7164
<b>삼밀사</b>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b>성화사</b>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b>실보사</b>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b>운천사</b>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b>일상사</b>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b>자석사</b>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b>광각사</b>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b>화운사</b>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b>동해사</b>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민준
김봉래	김성민	김승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연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업	장민정
정재영	정희연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경림
한미영	한명희	허지웅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네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8(2019)년 12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처 불교총지종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숲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새해에 마음 먹었던 일들  
잊지 않으셨지요?

이제 남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먹었던 일 매듭을 잘 짓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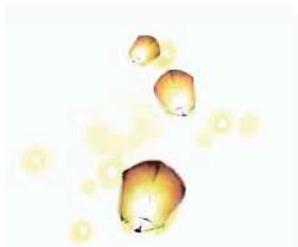
을 해 위드다르마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합시다!

### 행복이란

자신의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함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호



증생들 중에는 빨리 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어리석음을 없애 해탈하려고 한다면  
오로지 굳은 결심으로 용맹스럽게 정진해야 한다.

- 화엄경 -